



|       |                       |       |                           |
|-------|-----------------------|-------|---------------------------|
| 보도 일시 | 2022. 1. 26.(수) 14:30 | 배포 일시 | 2022. 1. 26.(수) 13:30     |
| 담당 부서 | 공공정책국<br>공공안전정책팀      | 책임자   | 팀장 박성주 (044-215-2560)     |
|       |                       | 담당자   | 사무관 류남욱 (jknamu@korea.kr) |

## 2021년도 안전관리등급 평가 착수

- 작년 개선 조치사항 이행여부를 금년 평가하여 상시 안전관리 능력 향상 유도
- 금일 평가단장·평가위원 위촉장 수여 및 워크숍 개최로 본격 평가 착수
- 금년 최초 안전관리등급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
- 안전관리 능력이 없는 시공사 입찰 제한 강화를 위해 계약특례 1분기내 승인 예정  
 도로, 철도, 주택 등 관련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우선 적용 예정

-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26.(수) 14:30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1년도 안전관리등급 평가 착수회의 및 평가단 워크숍에 참석하여 평가단장\* 및 평가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음

\* 정진우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 < 착수회의 및 워크숍 개요 >

- 일시 : '22. 1.26.(수) 14:30~18:00
- 장소 : 서울지방조달청 3층 PPS홀
- 참석 : (정 부) 기획재정부 2차관, 노동·과기·국토부 안전평가 담당 실국장 (평가위원) 산업계·학계·연구원 등 안전전문가 32명 (평가지원) 안전전문 공공기관(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생명공학연구원)

- 안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①안전관리등급 평가 의미, ②금년 주요 특징 및 나아가 ③금년 공공기관 안전 정책 추진방향 등을 강조하였음

### ① 안전관리등급 평가 의미

- 내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회 전반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등급 평가 목적과 중요성을 강조
- 안전등급 평가는 안전종합진단을 통해 안전 취약요소를 조기 발견 후 신속히 개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안전능력을 향상하여 중대 산재사고 예방이 목적

### ② 금년 안전등급 평가의 특징

- ◇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안전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평가 실효성 제고 및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최초 반영 예정

- **(개선과제 이력제)** 전년도 평가단의 기관별 개선 권고과제에 대해 조치사항 이행 여부를 금년 안전관리등급 평가에 반영하여 지속적인 안전능력 향상 견인
  - \* 안전관리등급 평가를 통한 개별 공공기관의 개선 필요과제 발굴 → 개선의무 부과 → **(당해연도) 이행 점검·평가** → **(다음연도) 안전관리등급 평가 시 개선과제 작업현장 작동성 재평가**
- **(위험성 평가\*)** 내실 있는 동 평가를 위해서 현장 근로자 참여 여부를 안전등급 평가에 반영하고, 현장 검증은 모든 평가 대상기관으로 확대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 시 근로자 참여율을 높여 실질적인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정보 파악 등에 기반한 개선 유도
    -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사전 파악하여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제도
- **(사고사망 감소 노력)** 중대 산재사고 감축을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도 평가 강화
  - 산재 사고사망 증감에 대한 계량 평가와 사고 감소 노력\* 등을 병행 평가하여 해당 기관의 중대 재해 예방 노력을 유도
    - \* 사고사망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안전 대책을 수립 후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작업현장에 적용 노력 등을 평가
- **(경영평가 연계)** 금년부터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경영평가 중 「재난·안전 관리 지표\*」에 최초 반영하여 안전등급 평가의 중요성 제고
  - \* 공기업의 경우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사이버 보안, 안전관리등급 결과 등으로 구성 (비계량 총6점)되어 있으며, 안전관리등급 결과에 최대 가중치 부여 예정

### ③ 금년 안전 정책 추진 방향

- 
- ◇ 추가로 금년에는 공공기관의 중대 산재사고의 획기적 감소와 예방을 위해 「전사적 안전경영체계 구축\*」을 완성해가는 원년의 해로 삼자고 강조
    - \* CEO의 안전관리에 대한 확고한 의지, 안전경영 우선순위 설정으로 CEO부터 안전부서 직원 및 최일선 작업현장 근로자까지 안전의식이 내재화되어 상시적 안전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태
- 
- **(CEO)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경영진(CEO, 상임이사) 안전혁신 리더십 교육」을 금년부터 안전관리등급 평가 모든 대상기관(99개)으로 확대

- **(직원 역량강화)** 안전보건공단 교육원 및 체험교육장을 활용하여 금년 최초 안전실습·체험 교육의 실천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안전전문인력 양성
  - 직원들의 안전 전문 수준별 맞춤형 교육(초·중·고급)을 실시하여 각 과정별 안전보건공단 인증 시험제도 운영으로 안전 현장 전문가를 지속 양성 예정
  - \* 2월까지 2차례 시범운영 교육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확정하고, 3월부터 정식 개설하여 1개 과정 당 20명 내외로 월 3회(3박4일 집체교육) 실시로 연 1,100여명 수료 예상
- **(안전신호등 시범)** 건설현장의 획기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로공사에 안전보건공단 및 국토관리원과 협력하여 위험 공정별 실시간 안전관리 상황판을 시범 운영
  - \* 시범운영 효과 등을 분석하여 철도 등 유사 건설현장 보유 주요공공기관으로 확대 추진
- **(계약제도 개선)** 공공기관은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관리 능력이 없는 시공사는 입찰 제한을 강화하도록 계약특례를 금년 1분기 내에 승인 예정
  - \* 도로, 철도, 주택 등 관련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안전항목을 신인도 평가(가·감점제)에서 정규 배점평가로 강화하는 계약특례를 시범 운영 후 정규 제도화(계약예규 개정) 검토
  - \* (공사계약 절차) 입찰공고 → (1단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현장설명 → 입찰 → (2단계)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④ 평가 관련 당부사항

- 특히, 금년은 평가 결과가 처음으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되므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엄정한 평가 당부
- 또한, 평가 취지에 부합되도록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취약 요소를 빠짐없이 발견해서 즉시 개선되도록 「맞춤형 안전 컨설팅」 역할을 강조

- 향후 평가 일정은 금일 평가단 워크숍을 시작으로 본격 평가 착수 예정
- 평가 결과는 2~4월 서면심사, 현장검증 및 이의제기 절차, 4월말 평가단 전체회의 등을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보고로 5월 초순까지 확정 예정

[참고 1] 「'21년 안전관리등급 평가 착수회의 및 평가단 워크숍」 인사말씀

[참고 2] '21년도 안전관리등급 평가 대상 기관



**< 인사 말씀 >**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2차관 안도걸입니다.

정진우 안전관리등급 평가단장님,  
그리고 평가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 열정이 요구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업무를  
맡아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고용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님을 비롯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위원님과  
평가 지원기관으로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기관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의 의미 >

내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회 전반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임

\*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 등이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최고  
경영자는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음

안전관리등급 평가는

중대 산재사고 발생에 대한 사후적 책임을 묻고  
책임자 처벌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설현장 등 위험 작업현장을 가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 전문가가 선제적 안전 종합진단과  
안전취약 분야 컨설팅 등을 실시함으로써  
전반적인 안전능력을 신속 회복하여  
중대 산재사고 예방능력을 보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년에 최초로 실시했음

구체적으로는

위험한 작업현장을 가진 기관들에 대해  
최우선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게 하고  
작업현장에서 안전 활동 이행 점검으로 이어지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안전등급 평가의 중요성을 감안,  
금년부터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므로  
평가위원들의 객관적인 평가가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함

\* 공기업의 경우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사이버 보안, 안전관리등급 결과 등으로 구성  
(비계량 총6점)되어 있으며, 안전관리등급 결과에 최대 가중치 부여 예정

그래서 금년 평가단은  
모든 평가위원 후보들을 대상으로  
평가대상 기관이 발주한 연구용역 수행 여부 등  
철저한 윤리 검증 등을 거쳐 구성하였음

### < 금년 안전관리등급 평가의 주요 특징 >

금년은 안전관리등급 평가가 2년째로서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에서 중대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전반적인 안전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주안점을 둠

우선, 전년도 안전관리등급 평가단이  
평가 대상 기관별로 개선 권고한 과제에 따른 조치사항을  
금년에도 최일선 작업현장에서  
계속 이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일회성 평가가 아닌 「상시적인 안전관리 능력향상」을  
유도할 계획임

둘째,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작업현장의 실질적인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 시 현장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평가 대상 모든 기관의 현장 검증을 강화하였음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중대 산재사고 감축을 위해  
산재 사고사망 증감에 대한 성과 평가(계량)와 함께  
사고발생 기관은 그 원인을 분석하여 안전 대책을 수립 후  
해당 기관의 모든 작업현장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사고 감소 노력(비계량) 등을 병행 평가할 예정

## < 금년 안전 정책 추진 방향 >

중대 산재사고의 획기적인 감소와 예방은  
최고 경영진의 안전관리에 대한 확고한 의지 및  
안전경영 우선순위 설정으로  
안전부서 직원부터 최일선 작업현장 근로자까지  
안전의식이 내재화되어  
작업현장에서 상시적인 안전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전사적 안전경영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함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우선적으로  
작년에 안전관리등급 하위기관 위주로 실시했던  
「공공기관 경영진(CEO, 상임이사) 안전혁신 리더십 교육」을  
금년부터 안전관리등급 평가 모든 대상기관(99개)으로  
확대할 계획임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현재 안전혁신 리더십 교육 운영계획안<sup>1)</sup>을 마련하여  
모든 공공기관 대상으로 서면 의견수렴과  
작년 안전등급별 대표 10개 기관을 선정하여  
CEO 및 상임이사의 심층 인터뷰를 병행 실시 중임

1) < 2022년도 안전혁신 리더십 교육 운영 계획안 >

- ① (상반기) 안전관리등급 대상(99개)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추진  
※ '21년 경영진 안전혁신 교육 이수 기관(65개)은 교육과정 차별화 운영
- ② (하반기) 안전등급 평가결과, 미흡 기관은 현장 중심의 체험 교육 등 맞춤형 과정 운영 예정
- ③ (신 규) 경영진 신규 부임 기관은 3개월 이내 교육 추진  
\* 공공기관 알리오 공시 기준 : '22년 임기 만료 CEO 21명, 상임이사 98명

둘째, 작년 안전관리등급 평가 결과,  
공공기관은 안전 전문 인력이 부족하거나  
안전부서는 높은 현장 근무강도와 사고 발생 시  
인사 상 불이익 등 이유로 기피대상이 되고 있어  
안전 전문 우수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

\* A공공기관의 안전전담부서는 인력을 대폭 강화하여 약40여명 내외로 운영하고 있으나,  
기존 직원들의 기피로 매년 신규 채용자를 배치하여, 3년차 직원이 중고참 역할로 전문성 결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년 최초 3월부터 안전보건공단 교육원 및  
2개 체험교육장(제천, 공주)을 활용하여  
공공기관 안전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3회(3박 4일) 안전 실습 및 체험위주  
실전형 「안전부서 직원 전문성 향상 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하여 금년 약 1,100여명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

또한, 안전부서를 안전 전문 우수인력이  
선호하도록 우수기관 사례를 벤치마킹<sup>2)</sup>하여  
인사 및 재정 상 인센티브를 크게 확대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지침」을 금년 상반기내에 개정할 예정

셋째, 중대 산재사고 발생에 취약한  
도로공사 건설 현장의 실시간 안전관리 조치로서

2) B공공기관은 안전부서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전문 직위부여로 인사 가점제 운영, 승진과 해외 연수 선발 시 별도 TO 운영 등

안전전문 공공기관(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과  
도공이 협업하여 공정별 「안전관리 상황판(안전신호등)」을  
금년 최초 시범 운영 예정으로  
제도 운영의 효과 등을 분석하여  
철도 등 유사한 건설현장 보유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

마지막으로 금번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형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회적 책무와 가치가  
훨씬 높게 요구되는 공공기관은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최우선 확립하기 위해

도로, 철도, 주택 등 관련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시공사는  
입찰 제한을 강화하도록  
계약특례를 금년 1분기 내에 승인하도록 할 예정

\* 도로, 철도, 주택 등 관련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안전 항목을 신인도 평가(가·감점제)에서 정규 배점평가로 전환하는 계약특례를 시범 운영 후 정규 제도화(계약예규 개정) 검토

\* (공사계약 절차) 입찰공고 → (1단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현장설명 → 입찰 → (2단계)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 평가 관련 당부 및 마무리 말씀 >

평가위원 여러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최근 일련의  
안전조치 위반에 따른 중대사고 발생 등으로  
해당 기관에서 안전경영체계 구축 등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진 상황에서도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함

첫째, 특별히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평가의 공정성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엄정하게 평가해 주시기 바람

둘째, 평가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평가위원님들의 전문성을 토대로  
안전취약 요소를 빠짐없이 발견해주셔서  
해당 기관은 이를 즉시 개선하여  
상시 안전능력 향상 구축 시스템이 작동되는  
「맞춤형 안전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평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안전 분야에 대한  
노하우가 「공공기관의 안전한 일터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임

감사합니다.

① 공공기관 유형별 평가 대상 기관 : 99개 기관

\* '20년 대비 1개 기관 증가 (① 신규 2개 : 사고사망 신규 발생기관(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어촌어항공단), ② 감소 1개 : 기관 통폐합 (한국광해광업공단 = 광물자원공사 + 광해관리공단))

| 공기업<br>31개  | 준정부기관<br>27개   | 기타공공기관<br>41개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강원랜드</li> <li>2. (주)한국가스기술공사</li> <li>3. 대한석탄공사</li> <li>4. 부산항만공사</li> <li>5. 여수광양항만공사</li> <li>6. 울산항만공사</li> <li>7. 인천국제공항공사</li> <li>8. 인천항만공사</li> <li>9. 주식회사 에스알</li> <li>10. 한국가스공사</li> <li>11. 한국공항공사</li> <li>12. 한국광해광업공단</li> <li>13. 한국남동발전(주)</li> <li>14. 한국남부발전(주)</li> <li>15. 한국도로공사</li> <li>16. 한국동서발전(주)</li> <li>17. 한국마사회</li> <li>18.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li> <li>19. 한국서부발전(주)</li> <li>20. 한국석유공사</li> <li>21. 한국수력원자력(주)</li> <li>22. 한국수자원공사</li> <li>23. 한국전력공사</li> <li>24. 한국조폐공사</li> <li>25. 한국중부발전(주)</li> <li>26. 한국지역난방공사</li> <li>27. 한국철도공사</li> <li>28. 한국토지주택공사</li> <li>29. 한전KDN</li> <li>30. 한전KPS(주)</li> <li>31. 해양환경공단</li> </ol>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li> <li>2. (재)우체국물류지원단</li> <li>3. 공무원연금공단</li> <li>4. 국가철도공단</li> <li>5. 국립공원공단</li> <li>6. 국민연금공단</li> <li>7. 근로복지공단</li> <li>8. 도로교통공단</li> <li>9.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li> <li>10. 시청자미디어재단</li> <li>11. 한국가스안전공사</li> <li>12. 한국교통안전공단</li> <li>13. 한국국토정보공사</li> <li>1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li> <li>15. 한국농어촌공사</li> <li>16.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li> <li>17. 한국산업단지공단</li> <li>18. 한국석유관리원</li> <li>19. 한국소방산업기술원</li> <li>20. 한국수산자원공단</li> <li>21. 한국승강기안전공단</li> <li>22. 한국에너지공단</li> <li>23. 한국원자력환경공단</li> <li>24. 한국자산관리공사</li> <li>25. 한국전기안전공사</li> <li>26.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li> <li>27. 한국환경공단</li> </ol>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광주과학기술원</li> <li>2. 국방과학연구소</li> <li>3. 극지연구소</li> <li>4. 기초과학연구원</li> <li>5. 나노종합기술원</li> <li>6. 대구경북과학기술원</li> <li>7.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li> <li>8.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li> <li>9. 세계김치연구소</li> <li>1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li> <li>11. 안전성평가연구소</li> <li>12.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li> <li>13. 울산과학기술원</li> <li>14. 코레일유통(주)</li> <li>15. 한국건설기술연구원</li> <li>16. 한국과학기술연구원</li> <li>17. 한국과학기술원</li> <li>18. 한국기계연구원</li> <li>19. 한국기술교육대학교</li> <li>20.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li> <li>21. 한국나노기술원</li> <li>22. 한국뇌연구원</li> <li>23. 한국생산기술연구원</li> <li>24. 한국세라믹기술원</li> <li>25. <b>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b></li> <li>26. 한국식품연구원</li> <li>27. <b>한국어촌어항공단</b></li> <li>28.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li> <li>29. 한국원자력연구원</li> <li>30. 한국재료연구원</li> <li>31. 한국전기연구원</li> <li>32. 한국전자통신연구원</li> <li>33. 한국지질자원연구원</li> <li>34. 한국천문연구원</li> <li>35. 한국철도기술연구원</li> <li>36. 한국표준과학연구원</li> <li>37. 한국한의학연구원</li> <li>38. 한국항공우주연구원</li> <li>39. 한국해양과학기술원</li> <li>40.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li> <li>41. 한국화학연구원</li> </ol> |

## ② 99개 평가대상 작업현장 보유 대상별 공공기관

( ① 1개 작업현장 보유 기관 74개 + ② 2개 보유 기관 9개 + ③ 3개 보유 기관 16개 )

| 구분                                  | 위험요소                         | 공공기관명   |
|-------------------------------------|------------------------------|---|
| 1 개<br>작업<br>현장<br>보유<br>기관<br>(74) | 작업장<br>(30)                  | 근로복지공단, 대한석탄공사, 도로교통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주식회사 에스알,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코레일유통(주),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전KDN(주),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
|                                     | 건설현장(1)                      | 한국자산관리공사  |
|                                     | 시설물(7)                       | (주)강원랜드,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민연금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한국산업단지공단  |
| 2 개<br>보유<br>기관<br>(9)              | 연구시설<br>(36)                 | 광주과학기술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극지연구소, 나노종합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세계김치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뇌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
|                                     | 작업장<br>+건설(1)                | 한국환경공단  |
|                                     | 작업장<br>+시설물(7)               |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 3 개<br>보유<br>기관<br>(16)             | 건설현장<br>+연구(1)               | 국방과학연구소   |
|                                     | 작업장<br>+<br>건설현장<br>+<br>시설물 | 국가철도공단,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